社 說

포천아카데미 창립식

포천여성들이 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아름답고 달콤한 소리보다는 쓴소리를 내겠다는 것이다. 포천아카데미 창립식이 9월18일 오전 11시에 포천시여성회관에서 개최됐다.

이날 창립식을 개최하기 위해 포천아카데미 관계자들은 포천시와 여러 차례 시간조율을 해야 했다. 그러나 끝내 포천시장은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다. 아주 오래 전에 시간조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날 11시에는 포천시장애인체육대회 개회식이 공설운동장에서 개최되었다. 포천시장애인체육대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시작되었다. 10시에 개회식을 해도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11시에 개회식을 실시한 것은 포천아카데미에 참석하지 않기 위한 숨은 노력이 아닌가 하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이날 창립식을 마친 포천아카데미 회원들의 입에서는 더 많은 회원들을 영입해 힘을 기르고 포천시의 잘못된 점을 소리 높여 외치겠다는 다짐을 했다고 한다.

오랜만에 들어보는 반가운 소리다. 여성들이 하나로 모이기 시작했고 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이문환 대표는 소리에 대해 듣는 것뿐만 아니라 남의 말을 잘 경청하여 말하고 의사소통의 수단으로 우리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지역에 숨어 있는 여성들을 발굴하고 잠재능력을 개발하여 여성들로 하여금 건전한 자아실현을 할 수 있도록 열정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여성의 자기실현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를 구축하고 가정과 지역사회와 더 나아가서는 국가와 세계에 공헌할 수 있는 길을 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그동안 포천시 여성단체를 이끌어온 단체장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석사 출신으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운영위원으로, 현재 포천시에서 여성단체를 이끌고 있는 단체장을 이사로 위촉하여 조직을 다졌다.

그리고 회원 중에는 포천신문 주부명예기자로 활동하고 있는 여성들이 많이 포진돼 있다. 이는 그동안 주부명예기자로서 세상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키웠고 직접 글을 써서 포천시민과 친숙해져 있어 그 활동에 탄력이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포천시 발전을 위해 포천에 있는 문화재에도 관심을 갖는다고 한다. 그리고 문화재 관리가 잘 되어 있는 지역을 1년에 한 차례 이상 방문해 벤치마킹을 하겠다고 한다. 참 고마운 일이다. 조상들의 지혜와 얼이 담긴 문화재를 잘 지키고 관리하고 홍보하는 일을 맡겠다는 것이다.

여러 가지 목적하는 사업도 큰 의미가 있지만 가장 의미 있는 일은 전문적인 직종에 종사하는 여성들의 교류의 장을 만들었다는데 더 큰 의미가 있다.

포천아카데미가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도록 포천시를 이끌어가고 있는 정치리더들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켜보고 지원해야 할 것은 지원하고 협의해야 할 사항은 함께 협의해 나가야 한다.

그래서 포천 여성의 힘으로 포천시 문화재가 잘 지켜지고 포천의 문화재를 보기 위해 외부에서 많은 사람들이 방문할 수 있도록 가교역할에 나서기를 기대한다. 이제 시작했으니 성과를 거두기 위한 노력의 발걸음을 멈추지 말고 계속 앞으로 전진하기를 기대한다.

수도권 규제 선별 완화 정비발전지구 도입해야

김영우 국회의원,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 추진

한나라당 김영우 국회의원(사진)은 수도권 규제를 선별적으로 완화하는 '정비발전지구' 제도의 도입을 골자로 한 '수도권 정비계획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수도권의 계획적 정비, 산업구조 고도화, 저발전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도권에서 공공기관이 이전해 나간 종전부지와 ▶노후공업지역 ▶접경지역 ▶주한미군반환공여구역 등을 정비발전지구로 지정하여 수도권 규제를 선별적으로 완화 적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수도권 정비계획법의 정비발전지구도입은 지난 17대 국회에서 이재창 의원, 정진섭 의원 및 정부가 제출했던 내용으로 정비발전지구 지정 범위를 놓고 건설교통위원회(현 국토해양위원회) 비수도권 의원들의 강력한 반대로 임기만료 자동 폐기된 바 있다.

김 의원이 제출할 개정안은 17대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논란이 되었던 정비발전지구 지정범위를 축소해 낙후지역과 주한미군반환공여지 주변지역, 자연보전권역을 삭제하고 접경지역과 반환공여구역으로 한정해 법안 통과 가능성을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우 국회의원은 "수도권의 정비와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1982년12월31알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제정 시행되고 있지만 26년이 경과된 지금 수도권의 과밀지역은 더욱 과밀화 되고, 외곽 지역은 더욱 낙후되는 지역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특히 경기북부지역은 각종 중복된 규제로 지역 경제가 심각한 상황으로 지금이라도 수도권 규제가 차등 적용될 수 있는 정비발전지구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번 18대 국토해양위원회 역시 서울 및 수도권의원이 11명, 비수도권 의원이 16명으로 쉬운 상황은 아니지만, 비수도권 의원들을 적극 설득하여 법안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의지를 밝혔다.

개정안은 9월19일 현재 수도권, 비수도권 의원 17명이 공동발의에 서명한 상태다.

한편, 김영우 의원은 안보상의 이유로 지난 수십년 동안 피해를 감내해 온 군사시설 주변지역의 주민들에게 적정한 보상과 지역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제도적 장치인 군사시설주변지역 지원 특별법도 오는 10월중에 대표발의 할 계획이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함께 노력

노사민정, 산업평화 공동선언문 · 일자리창출 협약

의정부·포천·남양주 등 경기북부지역 7개 시군의 노사민정 대표는 9월19일 오전 11시에 경기도 북부상공회의소 2층 회의실에서 지역의 산업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역경제 살리기를 통한 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기북부지역 노사민정 포럼'을 발족하고 '산업평화공동선언문'을 채택하고, 더불어 일자리창출 협약을 체결했다.

경기북부지역 노사민정 위원장(노:한국노총 경기중북부지부 오범구 의장, 사:경기북부상공회의소 노시청 회장, 민: 대진대학교(종합인력개발원) 백승봉 원장, 정: 노동부 의정부지청 이덕희 지청장)은 "21세기 희망이 가득 찬 세계 속의 경기북부지역 건설을 위해서는 노사분규 없고 기업하기 좋은 지역이미지 정착이 가장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협력파트너로 참여하여 국내외 투자유치가 촉진되고 고용안정과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함께 노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노사는 사업장 단위에서 정보공유와 근로자 참여 활성화, 민간은 노사협력 및 지역이미지 쇄신에 대한 공감대 확산, 정부는 노사가 실시하는 노사관계 발전프로그램에 대한 지원 확대에 노력하며, 일자리 만들기 등 지역별 연대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북부지역 노사민정 포럼은 기존에 한국노총, 상공회의소, 노동지청 등 지역 노사정이 공동으로 참여하던 경기북부지역 노사정 포럼을 확대 개편하여 지역 시민단체 등 민간부문이 참여하는 명실상부한 지역 노사민정 협의체로 발돋움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향후에도 경기북부지역 노사민정 포럼은 분기별 정기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역 내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를 연중 실시하는 한편 노사민정이 연계한 각종 사업추진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기북부지역 노사민정 포럼과 관련된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노총경기중북부지부(876-3171), 경기북부상공회의소(853-6681), 대진대학교 종합인력개발원(539-2320), 노동부 의정부지청(850-7700)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포천시 선단동, 추석 맞이 국토대청결운동

인근 부대에서 장비와 병력 등 적극 지원

포천시 선단동사무소는 9월11일 매월 실시하는 국토대청결 행사를 대대적으로 전개했다.

특히 이번 국토대청결 행사는 추석을 맞이하여 43번 국도변을 비롯한 해룡계곡과 무지개동산 등 주요 행락지 및 도로변을 중심으로 그동안 불법적으로 투기되어 방치되었던 일반쓰레기를 집중적으로 일제히 수거하여 처리함으로써 쾌적하고 깨끗한 행락지를 조성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아울러 이번 국토대청결 행사에는 6공병여단126대대(대대장 중령 김관수)와 시설대대(대대장 중령 최용규)에서 40여명의 병력을 지원하여 수거가 어려운 지역의 청소까지 적극 지원해 지역주민들로부터 많은 칭송을 얻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국토대청결 운동 및 "아름다운 선단가꾸기 운동"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약속했다.

동 관계자는 "계속적으로 마을별로 각 마을의 노인회를 중심으로 생활 주변의 쓰레기 및 불법광고물을 일제히 정비하기로 하는 한편 관내 부대의 협조로 산간계곡 환경정화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연택 기자 uralism@nate.com

포천시 선단동사무소는 9월11일 매월 실시하는 국토대청결 행사를 대대적으로 전개했다.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 점검

포천시청 출입 차량 대상으로

9월16일 오전10시부터 오후5시까지 포천시청 주차장에서 시청을 출입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 점검을 실시했다.

기후 변화로 인한 환경피해가 심각하게 발생되고 있어 온실가스 감축 문제가 환경의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시기에 중점 시책으로 추진하는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 점검은 매월 두 차례 읍면동을 순회하면서 9월 현재 15개 읍면동사무소에서 총454대를 무료점검을 실시하여 총 50대의 기준초과 차량에 대하여 배출가스 개선을 권장했다.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 점검과 아울러 자동차 공회전 금지, 에너지 절약에 따른 온실가스 점검 방안 등을 홍보 팜프렛 1,600매를 제작 배포 하였다.

앞으로 포천시는 온실가스 저감 대책으로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을 비롯하여 에너지 절약, 자원의 재활용, 절전형 전열기구 사용 등 다양한 환경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연택 기자 uralism@nate.com

9월16일 포천시청 주차장에서 시청을 출입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 점검을 실시했다.

기사제보 · 광고문의

☎031) 542-1506,7

등록번호 경기 다 50007
2000. 8. 18 등록
포천신문　http://www.ipcs21.com

발행처: (주)포천신문사 경기도 포천시 동교동 213-4 고은 B/D 구독료 : 월 5,000원 / 년 50,000원 / 평생 500,000원

사 훈 : 주인정신(主人精神) 정론직필(正論直筆) 문화창달(文化暢達)

대표전화 (031)542-1507　　발 행 인 최호열
편 집 국 (031)542-1506　　편집국장 김영복
광고접수 (031)542-9888　　인 쇄 인 이정자
구독신청 (031)542-9889
F A X (031)541-9117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주간신문윤리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언제나 바른뉴스! 포천신문

www.ipcs21.com

포천신문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체육 및 시사관련 사항을 포함한 포천시를 중심으로 인접된 의정부시, 양주시, 동두천시, 연천군의 시·군정을 해설·소개하고, 시·군내의 각종 행사와 유명인사를 소개하며 주민생활에 필요한 각종 생활정보를 수록,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

정기구독 및 평생구독

정기구독 및 평생구독을 신청해 주신 애독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8년 8월 30일 ~ 9월 9일까지)
- 포천신문 임직원 올림 -

구독료 입금계좌 : 농협(585-17-004213)　예금주 : (주)포천신문사

최근발행현황
2008. 8. 30 포천신문 제423호 발행
2008. 9. 10 포천신문 제424호 발행
2008. 9. 20 포천신문 제425호 **발행예정**

취재기자 모집 | 소신있고 성실한 취재기자를 모집합니다. ☎031-542-1507